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52p, 중고선가치수 182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52p(+0p, WoW), 중고선가치수는 182p(+0p, WoW)를 기록함. 지난주, 현대중공업이 174,000CBM급 LNG운반선 2척을 수주함. 2024 1분기에 인도될 예정임. 현대삼호중공업은 174,000CBM급 LNG운반선 1척을 수주함. 2024년 인도될 예정임. (Clarksons)

Qatar Orders Six Gas Ships From South Korea to Boost Exports

총 23조원 규모 '카타르 프로젝트'의 한국 발주가 본격 시작됨. 카타르에너지공사는 대우조선해양에 4척, 삼성중공업에 2척을 발주함. 이번 발주 규모는 공개되지 않음. (Bloomberg)

COP26서 서약 쏟아지지만... "기온상승 1.5도 억제엔 역부족"

COP26은 전세계 105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파괴 중단, 메탄 배출량 -30% 감축, 한국 등 40여개국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합의에 의견을 모음. 전문가들은 이런 약속들이 구제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급박한 기후위기를 푸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고 보도됨. 2015 파리협약에서 합의 되었던 지구 기온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제한에는 근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연합뉴스)

탱커 시장 악몽 벗어나

탱커시장은 2021년 겨울을 계기로 회복할 것으로 보도됨. 이미 VLCC, suezmax 탱커 등은 9월 초부터 운임이 상승함.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나며 VLCC는 3분기 +49% 상승함. (선박뉴스)

LNG시장 강세 2025년까지

향후 2025년까지 LNG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도됨. 2021년 시장 강세는 실질적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2015~2018년 중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LNG프로젝트가 적었던 것에 기인함. 지난 10월 세계 2위 LNG생산업체는 Cheniere은 2건의 LNG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함. (선박뉴스)

현대건설기계, 자원강국 인니 노린다... 초대형 굴착기시장 공략

현대건설기계가 인도네시아에서 초대형 굴착기를 출시함.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인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국으로 최근 현지 광물 채굴 수요가 증가해 장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판매량이 전년대비 4배 급증할 것으로 보도됨. (연합뉴스)